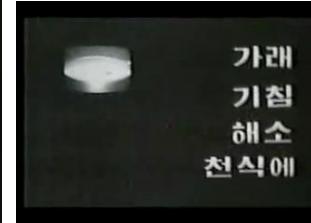


# 용각산(龍角散)



일본 회사 류카쿠산(龍角散)에서 개발하였다



용각산은 24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.

본래 일본 동북 지방 아키타(秋田) 번(오늘날 아키타 현 일대)의 어전의(御展醫)였던 후지이(藤井) 가문에서 만들던 약이다.

이후 후지이 겐신(藤井玄信)이 기존의 한약인 류가쿠산에 양의학의 생약을 도입하여 개량하였다.

1894년(메이지 27년) 후지이 겐신의 손자인 후지이 도쿠사부로(藤井得三郎)가 가루약 형태로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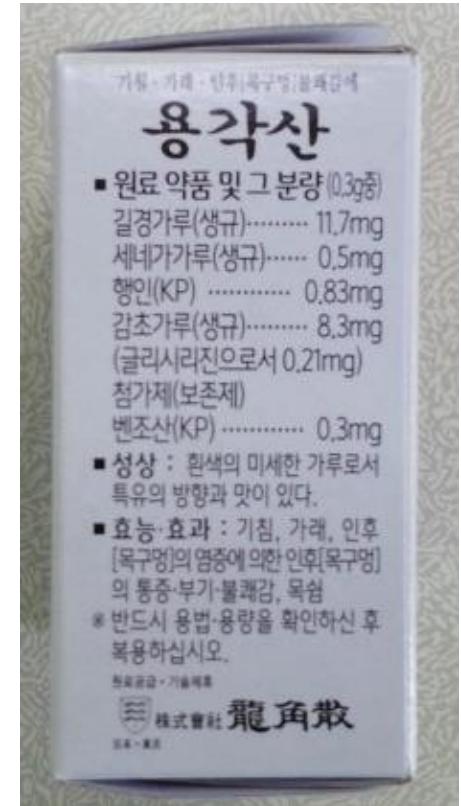
# 보령제약에서 1967년 생산 판매하였다



용각산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용골, 용뇌, 녹각상(鹿角霜)이 들어간 분말(산제)이란 뜻으로 지어졌는데, 이 성분들은 후에 처방이 바뀌면서 제외되었다.

현재는 행인, 길경, 감초, 세네가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높이고 섬모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가래를 제거시키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.

1일 3회 ~ 6회 물없이 복용한다.



311 少陰病 二三日 咽痛者 可與甘草湯 不差 與桔梗湯

桔梗 1냥, 甘草 2냥.

※ 세네가 : 북아메리카 인디언 중 체로키(Cherokee) 족(族)들이 거담제(祛痰劑)와 이뇨제(利尿劑)로 사용하였던 약재.